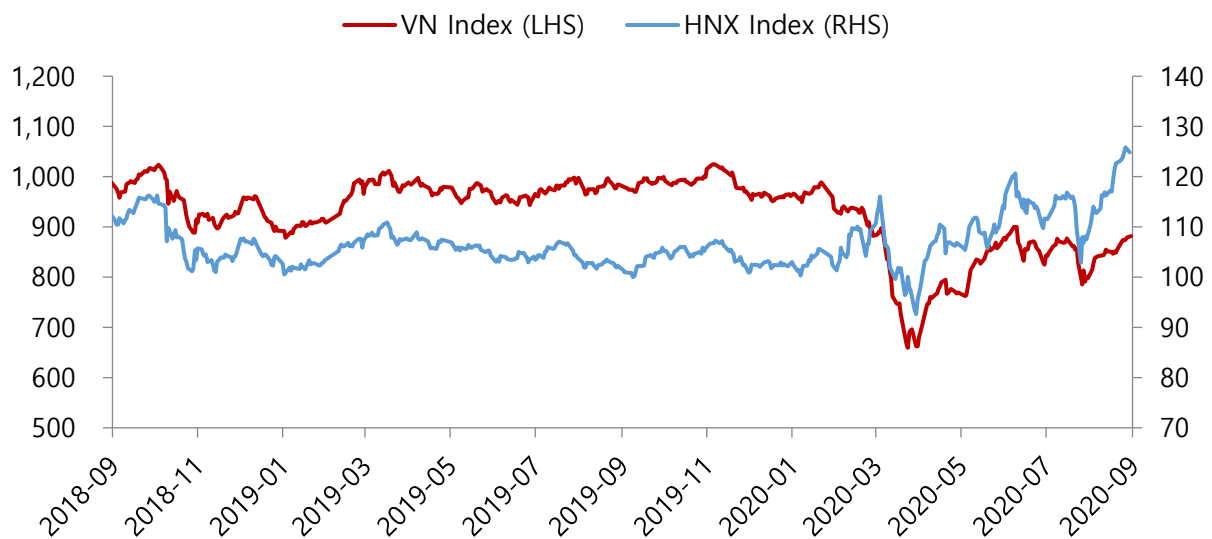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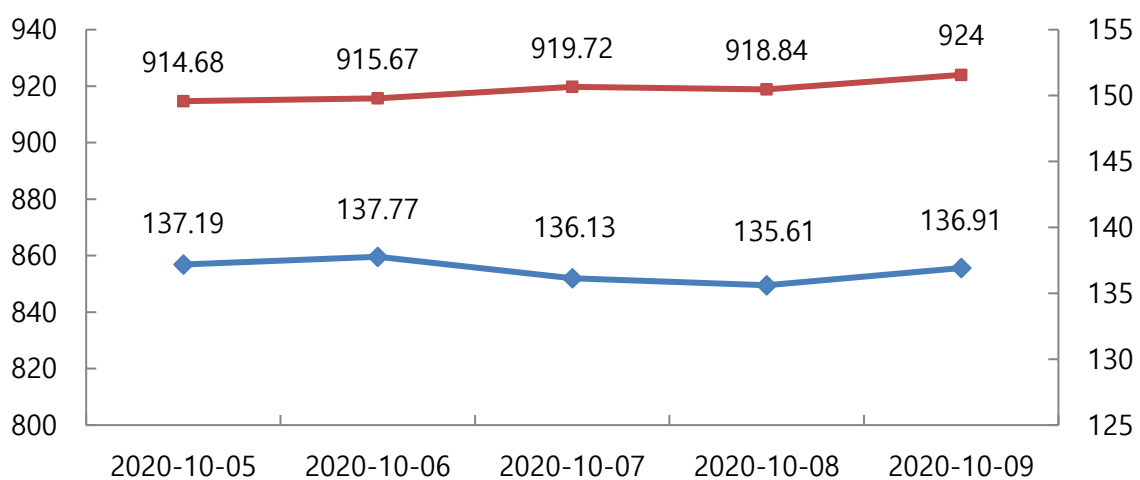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한 주간 VN 지수는 14.09p(1.5%) 상승, HNX지수는 2.0p(1.5%) 상승했다. 호치민, 하노이 거래소의 거래액은 지난 주보다 5.4%, 19.4% 상승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가 상승이 있었으나, 한 주간 단연 돋보인 회사는 마산그룹으로 약 26% 상승하며 주목받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 거래소에서 12 영업일 연속으로 순매도 중이다.

■ 개별 기업 뉴스

○ 베트남석유가스공사 석유 생산량 864만톤 달성

베트남석유가스공사(PetroVietnam)이 9 월까지 연초 목표치보다 9.4%높은 생산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 중 138 만톤이 수출되어, 기존 수출목표치의 5.2%를 초과했다. 연중 코로나-19 와 유가폭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공급체계를 통해 재무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공사 계열사들 역시 중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엠티브페트로는 지난 달 BK21 원유 굴착 장치를 설치했고, 페트로베트남 비료화학(PVFCCo)과 페트로베트남 카마우 비료 유한(PVCFC)는 비료 32 만톤을 수출했다. 신용평가사인 피치레이팅스는 페트로베트남의 높은 통합도, 재무 프로필 상 다양성 및 보수성을 반영하여 BB 등급을 부여했다.

2. 주요 경제 동향

■ 줄어든 스타트업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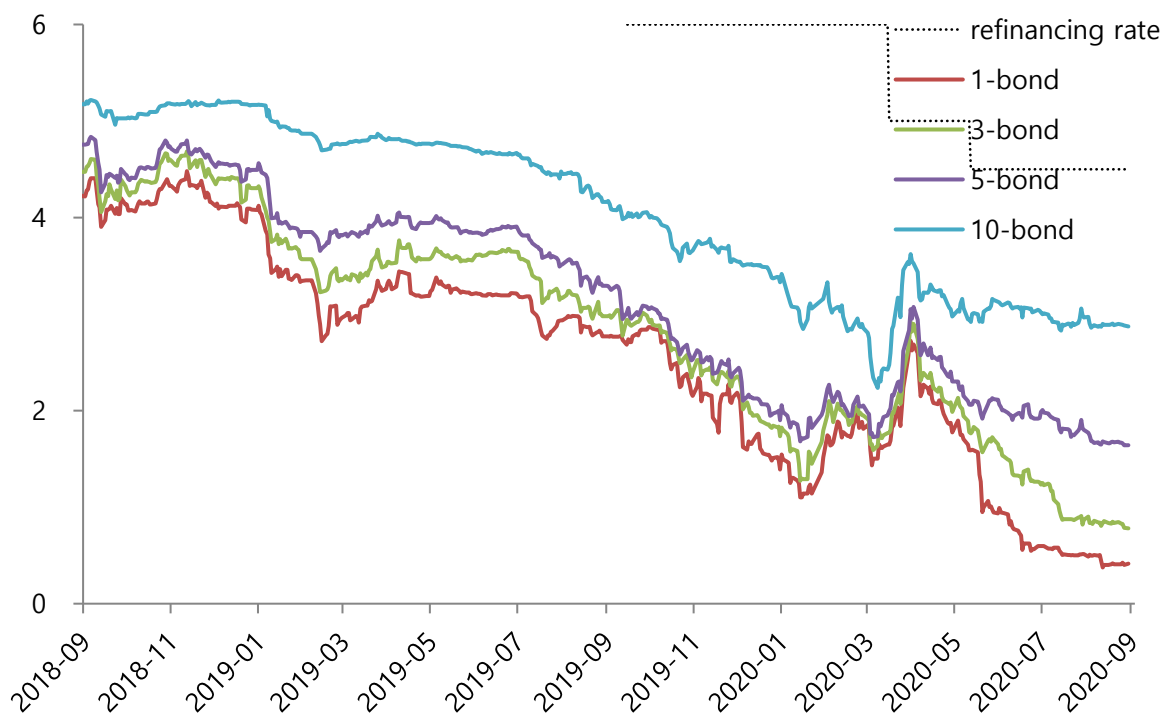
올 상반기, 베트남 내 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작년대비 22% 줄어, 2 억 2200 만 달러에 그쳤다. 현지 벤처투자사에 따르면, 엄격한 여행금지 및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동남아시아 내 6 개 주요 경제권에서 베트남은 총 투자의 16%를 차지하여 싱가포르(37%), 인도네시아(30%)에 이어 3 위를 차지했다. 투자금액의 하락에도 베트남은 여전히 좋은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베트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2 배 증가하여 8.61 억 달러에 달한 바 있다.

■ 과도한 보호무역에 대한 경고

베트남은 현재 200 여건에 달하는 보호주의 및 무역 분쟁에 당면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분쟁은 해산물, 철강, 알루미늄, 목재 수출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분쟁에서는 베트남은 43%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사 생선이나 새우는 미국, EU 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은 올해 덤핑혐의가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6 월,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호주는 7 월부터 표면처리 철강을 조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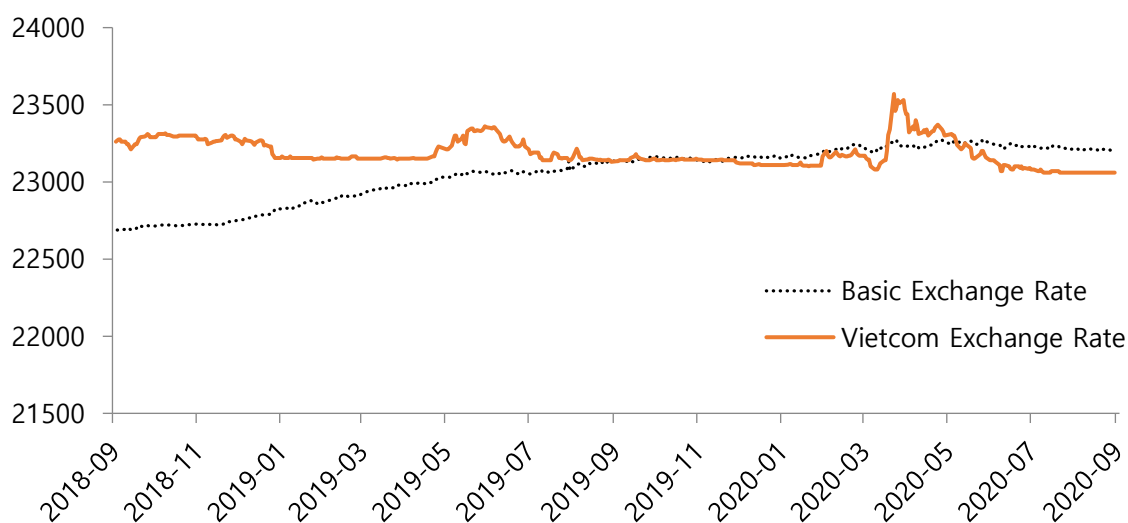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20-10-09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070	23,100	23,280



■ 국채 구매 증가

하노이 증권거래소를 통한 국채구매가 8-9월새 163% 증가하여 60.1조동(26억 달러)에 달했다. 베트남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5-30년 만기, 연 1.35~3.5% 이율로 발행된다. 이는 8월에 비해 0.02-0.35% 하락한 값이다.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는 2차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량은 9.4조동으로, 8월보다 12% 증가했다. 해외 투자자는 9월에 1.07조동을 순매수했다. 9월 30일 기준, 상장된 국채 총액은 1270조동 이상이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남부지방 공단 월임대료 상승

남부지방의 공단 월임대료가 3 분기를 기준으로 작년대비 20-30% 증가했다. m2 당 월임대료가 호치민시는 300 달러, 룡안은 200 달러, 동나이, 빈드영, 바리어-붕따우는 150 달러 상승했다. 점유율은 호치민시에서 90%, 타 지역은 80% 이상이다. 남부지방에는 올해 총 906 헥타르 규모의 4 개의 새 공단이 지어졌다. 물류센터를 지으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컨테이너 시장과 공단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호치민시 아파트 매매가 17% 상승

이어지는 공급 부족으로, 올 3 분기 호치민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상승하여 평균 2423 달러 올랐다. 다만 중산층용 주택이 일부 공급되어, 2 분기보다는 6.2% 내렸다. 코로나-19 로 인해, 건설업체는 지불기한 연기, 장기 무이자 및 2 년간 관리비 면제 등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부 신도시가 건설될 트득시에서 전보다 거래가 활발했다. 호치민시는 이번 분기에 지난 분기보다 많은 8000-10000 채가 공급되어 올해 총 공급량은 20000 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 한국 기업 동향

○ 베트남 진출하는 GS 칼텍스, 현지 '세차 스타트업'에 투자

GS 칼텍스가 베트남 세차 업체 비엠휴시(VietWash)의 모회사 브이아이(VI) 오토모티브서비스 지분 16.7%를 390 억동(약 20 억원)에 인수했다. GS 칼텍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베트남 석유제품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비엠휴시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내 50 여개의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차 스타트업이다. 비엠휴시는 베트남 최초로 오토바이 전용 자동세차기를 도입했고,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리맥스의 자회사인 페트로리맥스 사이공과 파트너십을 맺고 20 여개의 주유소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식에서 GS 칼텍스는 자회사인 GS 엠비즈가 운영 중인 차량정비 프랜차이즈 오토오아시스(autoOasis)의 베트남 진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GS 엠비즈는 비엠휴시와 함께 차량정비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해 차량정비 운영 노하우와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장비, 부품, IT 인프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More information: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7/202010070044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jiho@jplawvn.com +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